

# 욕망, 부채, 선물 Desire, Debt, Gift.

백용성(미학,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

## 1. 들어가며 - 욕망의 발견.

저는 오늘 예술가, 기획자, 시민, 학생 분들을 모시고, 우리의 처지, 즉 자본주의 하에서의 우리의 처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주체화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철학, 미학공부를 해왔는데요, 요즘은 책에서의 공부와 즐거움보다 현실에서의 공부 혹은 즐거움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들을 만들고 경험을 만드는 것은 묘한 흥겨움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저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늘 새롭게 죽고 태어나는 듯한 느낌들이 저를 가만히 나 두질 않는군요. 죽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차원이라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프로이트의 죽음본능은 절대 아니고, 당연히 생물학적 죽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탄생이어야겠지요. 물론 여기엔 에로티즘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군요. 제가 욕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의무, 그것은 늘 의심스러운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신성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혹은 혁명가의 작업이라고 해도 의무로서 나타는 일들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레닌의 10월 혁명을 생각해보면 될 듯싶네요. 욕망의 의무로의 강제적 변형은 스탈린에 이르러 완성되지만, 레닌에게도 없지 않았나 의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말하지만 의무는 나중의 일이고 욕망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스피노자 식으로 말하자면 마치 우주 실체의 자기 변용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라이프니츠 식으로 말하자면 숨겨진 힘 즉 대문자 Force, 혹은 충동 Impetus 자체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는 다른 우주의 욕망. 그것은 우주 에로스의 철학이겠습니다. 사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질 자체를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인간 활동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본질을 '생산'이라고 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끝없이 생산하는 것이고 그것이 들뢰즈, 가타리가 말하는 욕망하는 생산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욕망에 등을 돌리거나 이 욕망을 결핍의 욕망으로 만들며 거세하는 오이디푸스의 세계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의무가 먼저인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를 살고 있으며, 거짓욕망을 부추기는 사회를 살고 있어서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사실 막연한 관념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욕망을 제대로 느끼려면 일단 시간, 변화를 긍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자체는 시간의 흐름, 변화와 떼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욕망이요, 변화이겠습니다. <<부채 그 첫 5000년>>을 쓴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서구의 철학의 흐름을 크게 정태적인 철학과 역동적인, 과정의 철학으로 나눴습니다만, 그의 지적은 여러 철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로서 예를 들어 헤라클레이투스(만물은 변화한다)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역동에 중점을 두는 철학, 아마도 에피쿠르소, 스피노자, 베르그손, 니체, 마르크스, 화이트헤드, 시몽통, 들뢰즈/가타리 정도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정태적인 것, 불변의 것, 영원한 것을 강조하는 쪽은 당연히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 플라톤이 그 대가가 되겠죠. 쉽게 정리하자면 시간을 영원한 정지보다 저열하게, 부차적인 것으로 보느냐, 그 반대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정치, 문화, 예술의 변화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사회기능주의나 구조주의적인 입장들은 사회의 상태들을 안정적인 부동의 상태로 표상하길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능이 잘 돌아가느냐, 혹은 잘 돌아가지 않느냐, 정상이냐 아노미냐 하며 논쟁을 즐기죠. 나아가 아노미다, 질서가 없다, 예전이 참 좋았다 하며 떠들어 댁니다. 구조주의의 경우는 또한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간의 비례관계들을 따지면서 불변 항을 찾아내고 인류학적인 어떤 동종 구조를 찾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이 쌍둥이들은 그런데, 왜 한 사회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혹은 변화를 설명한다고 믿지만 참으로 묘한 변화가 되죠. 그러다가 점차 기계적 연대가 사회의 압력을 받고 경쟁상태로 내몰리면서 분업이 나오고 유기적 연대가 확대되어나간다...- 기계론적인 미소 변이 같은 설명이면서 외적 결정론의 설명들...등등.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의 힘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죠. 욕망입니다. 생산하는 욕망이요, 힘 자체이죠. 이것은 일종의 차이화의 능력입니다. 반복하는 가운데에 이행들을 만들어가는 밑바닥의 힘.

사실 그들은 변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사회체 자체가 그런 경향의 사회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들이 자주 출현한다고 볼 수 있죠.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여전히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집착하고 있어서, 거대한 시장 그물망에 있는 합리적 주체와 그물망 자체의 안전성, 평형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부채, 그 첫 5000년>>는 경제학의 논리를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비판한 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사회체이나 베르크손이 말하는 지배적인 달린도덕과 이에 대립되는 열린도덕이, 혹은 정태적 종교와 역동적 종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열린도덕, 역동적 종교 자체도 바로 욕망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과정의 철학 옆에 욕망의 철학, 혹은 기쁨의 철학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 2. 욕망의 넥서스Nexus-뇌로서의 사회적인 것.

하지만 욕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욕망하는 기계들은 다수적인 떼거리의 사태들, 끝없는 생산들 자체입니다. 어디서나 서로 연결되고 끊어지고, 다시 다른 것과 연결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성됩니다. 베르크손이라면 그것을 서로가 상호 침투하는 지속이라고 했겠죠. 그것은 그래서 일종의 두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모든 욕망은 집합적(collective)인 성격, 떼거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들뢰즈/가타리의 <<앙티 외디푸스>>에 따르면 이는 욕망 자체가 욕망하는 기계들로 들끓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분열적 흐름, 연결하고 절단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별자인 개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개인 이전의 상태 즉 전 개체적인 흐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통과하는 무수한 흐름들. 그러면서 '나'도 끝없이 변용되는 그러한 흐름들. 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통계학적이고 덩어리가 큰 그램 분자적인 흐름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사회의 출산율, 경제 성장율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욕망이 연결되고, 헤어지고,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는 그 아래의 흐름들, 이것은 진정한 우리사회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분자적인 체제, 다른 한편으로는 덩어리진 그램분자적인 체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연결되는 것, 사회가 뇌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사회를 뇌와 같다고 말한 철학자는 가브리엘 타르드라는 미시사회학의 정초자일 것입니다. 그는 당시 뒤르케임의 기능주의와 사회실재론 및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유기체설을 비판하면서 사회는 차라리 유기체가 아니라 - 즉 유기적 연대가 아니라, 뇌적 연결, 넥서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기체적인 사회는 차라리 고대사회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계급들이 성층화된 사회겠지요. 두뇌, 손, 발이 있는 계급적 관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 징후들이 더욱 두드러지는 바와 같이, 사회 자체에는 항상 그 밑바닥에는 상호 두뇌적인 관계가 연결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유기체가 아니라 두뇌일까요? 그것은 두뇌의 구성성분들이 갖는 균일성입니다. 특별히 서로가 뛰어난 것은 없죠. 모두가 희백질의 뉴런들이니까요. 즉 이것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불평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서의 평등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는 그 접속과 연결이 빠르며, 상호적, 수평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도 일시적인 우월함과 열등함, 중앙과 주변, 지배와 피지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즉 미시적 흐름들 중 어떤 것이 우세해지면, 아, 배고프다, 밥 먹자라는 욕구로 발현되기도 하며, 지루한 듯한 음악을 듣다가도 갑자기 맘에 드는 부분이 생겨나기도 하죠. 우리가 말하는 기분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그러한 흐름들의 변화, 리듬을 보여줍니다. 타르드는 이러한 상태를 새로운 모노돌로지 이론으로 즉, 느낌의 이론, 정동이론으로 정립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지다’의 형이상학입니다. 미시흐름-모나드는 다른 흐름과 연결되면서 절단해 자신이 다른 것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것은 소유되면서 그에게 일종의 여건이 되는 것이죠. 눈은 ‘본다’는 속성 일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색, 저 색을 ‘가집니다’. 포착하는 것이죠. 포획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마치 느린 파장의 빨간색을 눈이 잡아채서 빨간 색으로 붙잡고 있는 사태와 같습니다. 도처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의 무의식적인 의도는 먹히거나 다른 의도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그래, 그래, 맞아, 장난하냐, 그건 아닌 것 같은 데, 대박, 죽인다, 하면서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사태는 인간사회의 지배-피지배의 양상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다수적인 떼거리들의 흐름, 절단의 사태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즉 무의식적인 일종의 노력-욕망이 서로를 붙잡고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기억이라는 것도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 즉 흘러가버리도록 나누지 않는 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것처럼, 저절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뇌로서의 사회는 현실의 사회가 뇌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현실 사회와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인 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이미 주어진 이런 저런 사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아래에 흐르는 것으로서의 ‘사회적인 것’ 말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속도의 감응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인 것은 최첨단 네트워크 기술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딱! 보면 알지요. 일종의 원격작용이죠.

마지막으로 뇌로서의 사회는 그 진화와 관련된 방향과 연관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류의 고유한 뇌라 할 수 있는 대뇌피질은 뇌의 3번째 층위(1.생명의 뇌- 파충류뇌, 2.감정의 뇌, 3. 이성의 뇌, 피질로는 6번째)로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적응이 되어 있는 반면 사회체의 연결로서의 뇌는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진화를 그 자체로 생각해본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저는 3번째 층위의 사회적 완성이자, 일곱 번째 피질의 사회적 형성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에 예술의 중대한(항상 그렇지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더불어 예술이 혹은 둘의 새로운 결합은 전 지구적인 위기의, 재앙의 시대를 극복할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만 보더라도 생명일반의 성격을 띠면서도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개인의 탄생의 비밀자체가 처음부터 사회적인 영역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실재가 미리 주어져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개인이 미리 주어졌다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장황한 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짧게 말하는 게 좋을 듯싶네요. 개인과 사회는 동시에 탄생된다고. 막시류의(별, 개미 등) 사회체나 인간 사회체가

이런 점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동물행동학자들의 재미있는 보고들이 말해주는 것은 동물사회는 자연스럽게 혹은 거의 본능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사회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런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의 근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담스럽게 계보적인 하나의 조상이나 종에서 흘러온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의 폭발 혹은 간헐적인 폭발들인 생명자체에서 왔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생물학자인 굴드가 잘 보여줬듯이 지구상의 생명 진화의 역사는 단속평형(Punctuated Equilibrium)을 보이면서, 몇 번의 대량 멸종을 통해 전진해 왔기 때문입니다.<sup>1)</sup>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그러한 생명의 잠재성이 현재와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들끼리의 상호 작용입니다. 가브리엘 타르드에 따르면 그것은 모방행동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타인의 욕망과 믿음을 모방합니다. 생명의 영역에 유전이라는 반복과 차이화의 변이가 있다면, 사회의 영역에는 창조로서의 발명과, 모방이라는 반복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발명은 사회밖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절대고독, 절대죽음의 순간일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모방은 말 그대로 따라 하기입니다. 그것은 모종의 상호 이해능력 즉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무의식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베르크손의 지적처럼 동물의 본능적 영역이고,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능력의 신경적 근거가 '거울 뉴런'입니다. 이 능력에서 다양한 몸의 도식들이 구성되고 형성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언어활동이겠죠.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사회적 장'으로 진입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물리적 음성이, 다른 소음들과 달리 하나의 말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며 그와 동시에 들린 말은 거의 즉각적으로 내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습관의 반복으로 인해 획득된 즉각성입니다. (엄마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듣고 속으로 반복해야 엄마라는 말이 발성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발성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또 얼마나 반복해야 그 단어가 자신이 것이 될까요? 습관이 들여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즉각성은 거의 불가능한 신비처럼 보일 것입니다.)

몸들끼리의 장(場)에 자리 잡는 이러한 능력은 몸들끼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언제나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표정이나 몸짓, 아주 작은 얼굴근육의 미세한 차이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차이를 우리는 즉각 '읽어 낼 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얼굴은 그 몸짓과 더불어 탁월한 몸들끼리의 표현적 장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자체 일종의 생산, 작은 발명들의 연속입니다. 이 또한 뇌 과학에서 확인되는 물리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즉 사물과 인간얼굴의 인지 시에 뇌 영역의 활성화 부위가 다르죠. 여기엔 적어도 초보적 형태에서는 어떠한 인식주체나 행위주체의 합리적 판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각적으로 모방-반복되면서 정확히 의식되지 않는 모호한 뉘앙스들의 상황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의식에 '아'하고 들어오는 것죠.

타르드는 이렇게 암시되는 의식 상태를 '몽유병'적 이라고 불렀습니다. 들뢰즈/가타리는 사회에는 늘 집단적인

1) 진화라는 주제는 19세기의 강력한 주제였다. 그리고 이 주제 자체는 공간보다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생물의 진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진화(즉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시각을 부추겼다. (나아가 열역학 2법칙에서 주장된 시간의 비가역성 문제도) 다윈, 스펜서, 타르드, 마르크스, 니체, 베르크손 등 상당한 식자들이 풍부한 문제들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구조주의적 사유가 지배하면서 정태적 구조들에 논의가 뒤따랐다. 다시 최근에는 미시적 단위에서의 진화, 변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생물학에서의 집단유전설, 미시사회학, 역사학 등) 이것은 새로운 차원에서 진화를 사유하게끔 추동하는 계기가 아닐까? 이후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적어도 급격한 변화의 차원과 안정의 차원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각별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혁명, 한쪽에서는 안정이라는 양태가 현실의 진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두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쪽을 설명하거나 환원하려는 시도보다는, 동시에 그 동-근원을 포착함으로써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망상, 정신착란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적어도 원시사회에서의 공유병적 집단 암시가 존재할 수 있고, 주술적인 분위기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좀 더 개인적이고 합리적인 몸들끼리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에 따르면 전혀 아닙니다. 그는 『모방의 법칙(Le Lois de l'imitation)』에서 현대사회에서도 자유롭고 개인적인 외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차이는 과거에는 관습(coutume)의 형태로 나타났고, 오늘날은 유행이나 풍조(mode)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공유병'적인 것의 병리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또한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이 갖는 마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과 믿음의 모방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고(내면화되지 않은 모방은 없다), 높은 것에서 아래로(위계화가 없는 사회는 없다) 향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타르드는 인류의 출발은 매서운 아버지의 모델을 띤 소규모 가족, 씨족 사회였으며 그것은 '일방적'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폭넓은 통찰을 통해 그는 매우 역설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인간의 공감력의 일종인 모방 욕망이 결국 인류역사에 '상호적'인 민주주의를 추동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초의 인류는 마치 최초의 생물체들이 물질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아직 동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전의 법칙, 세습의 법칙이 지배했으며 권력과 부는 대부분 혈통관계에 기초한 가부장(pater familias)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했죠. 그러나 모방의 욕망은 전파력이 강하며 거기다가 드물지만 창조와 발명이 존재했기에 어느 순간 더 높은 자를 숭배하는 단계에서 선망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distance'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 모방의 필연적 결과입니다.<sup>2)</sup> 발터벤야민이 말한 숭배가치에서 전시가치로의 전환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류는 이제 유전의 법칙이 아니라 모방의 법칙의 덕으로 '사회적'인 자기 영역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은 아닐 것 같네요. 마치 사회가 낙관적으로 진보해나가는 듯이 보이니까요. 인간사회는 진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퇴행의 과정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사에 경향과 어떤 방향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미리 주어진 목적 따위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무수한 우연들의 개입들이 뭉쳐서 필연화되는 것입니다. 비결정성, 예측불가능성, 자유는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사회의 흐름들은 혹독한 사회체의 사회기계들의 지배로 점철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분명한 비결정적인 욕망하는 생산, 욕망하는 기계들의 흐름 즉 분자적 흐름이 존재하지만 다른 쪽에는 덩어리진 그램분자흐름 사회기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역사는 사회기계들이 분자적 흐름, 사회적인 것, 뇌적인 것을 지배해온 역사 혹은 자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스스로 쓴 역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제까지의 역사를 자연사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 같습니다.

2) 타르드에 따르면, 예를 들어 초기의 인류는 소규모였기 때문에 다른 부족과의 전쟁위험보다는 맹수와의 전쟁위험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응집력이 필요했고, 내부의 원시종교(정령신앙)가 발달했다. 그리고 맹수와의 격돌은 전쟁개념을 먹고 먹히는 관계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으며 아마도 이것이 식인풍습이 기원이 아닌가 추측한다. (종교로서는 강한 맹수 숭배). 그러다 가축화의 발명으로 인해 이것은 급격히 모방되었으며, 가축화는 전쟁개념도 바꾸게 하며, 이제 잡힌 자는 전쟁포로의 노예화(가축화로부터)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 관념의 변화를 야기했으며 가축화는 의인화의 상상을 부추겼다. 따라서 이집트엔 가축동물의 숭배가, 그리스에 이르러서는 더욱 의인화되어서 인간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 중간 형태가 켄타우로스다).

### 3. 양심적 가책의 주체화와 예속화과정.

그렇다면 정태적 경향, 오이디푸스는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욕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데 사회체는 우리를 고통과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죽음까지 쫓아오려고 하는가? 그것은 니체에 의하면 분리하는 반응적 힘들-기계들 입이다. 즉 끝까지 뺏어나가려는 욕망의 벡터를 잡아떼고, 분리하고, 자신에 종속시키고자하는 반동의 힘이죠. 하지만 이 힘도 하나의 욕망의 결과요, 사람들이 욕망하는 대상이 됩니다. 야만적 별종이라 할만한, 정신분석학자인 라이히는 ‘대중은 파시즘을 욕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대중은 박정희를 욕망했습니다. 진정한 전제군주, 진정한 아버지를 욕망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회체의 사회기계들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억압하고 핍박하는 기계 말입니다. 그것은 사회제도, 여러 법적, 행정적, 치안적 장치들을 배치하고 연결합니다. 하지만 욕망하는 한에서 그것은 언제나 억압과 핍박을 숨깁니다.

노예들이 주인들을 얼마나 욕망하겠습니까, 노예들을 주인들의 욕망, 믿음, 사고방식과 스타일 등을 욕망합니다. 맞다, 우리는 비천하다, 그것은 당연하다, 주인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어디선가 다르고 이질적인 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들도 주인이야, 너희들도 주인이 될 수 있어, 검둥이도 사람이야, ...웅성거리는 목소리들, 다시 그것이 새로운 욕망을 부추깁니다. 맞아 우리는 비천하다. 그것은 부당하다. 주인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 주인들은 또 노예들을 얼마나 욕망하겠습니까, 노예들의 집단적인 순종의 몸짓,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숙인 고개들, 명령의 힘, 맞다, 우리는 위대하다, 그것은 당연하다, 내가 있어서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그들은 자신을, 노예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하게도 모두가 모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로가 노예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한한 부채를 순환시켜 각자들에게 떠맡기는 형태로 진화합니다. 채권자를 빼고는 모두가 채무자요, 노예인 것입니다. 들뢰즈/가타리는 니체를 따라(특히, <<도덕의 계보학>>) 자본주의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무한한 관계를 분석합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를 지배했던 토지기계, 전제군주기계에도 채권-채무의 기술이 적용됩니다만, 토지기계에서는 기껏해야 한정적인 채무들이었으며, 전제군주기계 때에는 그것이 무한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영토화와 탈코드화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사태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우리찌오 라짜라토가 『부채인간』에서 지적했듯이 신자유주의 이후, 2007년 금융 사태이후는 특히나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모든 자본주의 통치술, 지배술의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채무를 만들어 내는, 끝없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재앙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코가 지적한 규율사회 즉 감시와 처벌의 사회는 지나가고 이제 무시무시한 예속화와 자동 기계화하는 통제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채사회라 할 만한 채권-채무의 기술을 가지고 말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분석의 대가입니다. 먼저 그는 채권-채무의 비대칭적 관계로부터 양심의 가책이라는 내면화, 주체화, 예속화의 과정을 분석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은 책임에 대한 기억이고, 기억은 사육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육은 고통에 대한 기억을 매개로 하는 것이죠. 고통에 대한 기억은 고통을 피하게 하도록 하며, 이것이 사육과정을 통해 기억은 인간 의지의 이성이 됩니다. 이성은 고통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금지시킨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로 니체는 거세나 희생제물 등의 잔인한 종교 의례, 잔인한 형벌제도, 그리고 여러 금욕적 의례들을 듭니다. 무시한 신체에의 각인들. 잔인함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망각에 대한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니체에게서 망각이라는

하나의 능력 즉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그것을 가로 막는 것이죠.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인간이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변화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저 변화의 압력 때문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던 심각한 병이라고 간주한다. 저 변화란 인간이 결국 사회와 평화의 구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변화를 말한다. [...] 오래된 자유의 본능에 대해 국가조직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저 무서운 방어벽은 -특히 형벌도 이러한 방어벽에 속한다- 거칠고 자유롭게 방향하는 인간의 저 본능을 모두 거꾸로 돌려 인간 자신으로 향하게 하는 일을 해냈다. 적의, 잔인함과 박해, 습격이나 변혁이나 파괴에 대한 쾌감 -그러한 본능을 소유한 자에게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양심의 가책의 기원이다. 길들여지고자 하는 인간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발명한다.<sup>3)</sup>

이러한 가책은 미래로의 전진을 가로막으며 우리의 현재를 빈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라는 것은 늘 지나간 과거와 오고 있는 미래의 종합인데, 자꾸만 미래가 이자지급일, 만기일의 형식으로 현재를 옥죄기 때문이죠. 우리는 초조하고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부채는 시간 자체, 곧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로서의 시간, 다시 말해 모든 정치적·사회적 혹은 미학적 변화의 초기조건인 시간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sup>4)</sup> 이러한 부채는 당연히 채권자를 상징하죠. 현대에 있어서 무한한 부채를 생산해내는 채권자는 ‘자본’ 그것도 금융자본입니다. 모든 것의 논리를 G->G'의 형식으로 묶고 강제하는 단순하지만 잔인한 논리입니다. **돈은 돈을 낳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조금만 들여 봐도 모든 게 이러한 논리로 포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핸드폰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노동의 착취만이 문제가 아니라 휴식, 이동, 소비 등 광범위한 인간 활동을 채권-채무의 그물로 엮는 것이죠. 거기다가 치밀하게(?) 신용등급을 매기면서 매순간 우리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국가가 아닙니다. 신용평가기관도 국가가 아니죠. IMF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시무시한 불한당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행해왔던 여러 일방적 행위들은 『부채, 그 첫 5000년』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느헤미야」는 어떻게 빛을 지게 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채권자가 노예로 가져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유대교에 있는 희년제도라는 것도 얼마나 부채가 사회를 망가뜨렸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것은 그 어떤 구제가능성도 없는 시스템 속에서 진행됩니다. 라짜라토는 부채의 존재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행동역능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것이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야 하며(케르케고르는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질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만들어지고 있는 열린 시간, 다시 말해 선택의 가능성, 실존의 위험 및 가능한 분기점들을 포함하는 ‘현재’를 내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가 무력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예견불가능한 분기점 들 및 가능성들이다.”<sup>5)</sup>

재밌는 것은(?) 신자유주의 이후 이제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논리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푸코는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그의 콜레주드 프랑스 강의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안전,영토,인구』) 그것은 이제 예전의 이기적이고 합리적 형식을 벗어나, 자기경영자의 관념을 발명합니다. Faire de soi-meme une entreprise. 이제 게임의 룰이 변합니다. 양심의 가책, 자학, 원한의 심리적 내면화와 더불어 이제 각자는

3) 니체, 『도덕의 계보』 (GM II 16: KGW VI 2, 337-339. 한글판 pp.431-432.

4) 마우리쥬오 라짜라토, 『부채인간』, p.79.

5) 위책, p.106.

각자의 경영자로서 자신을 경영해야 한다는 관념이 득세합니다.(스케줄관리, 자기개발서들, 합리성의 규칙들... 정말로 미친 합리성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을 전체화하는 동시에 개별화시키는 놀라운 발명기술입니다. 당신은 능동적인 사람이다. 그러니 열심히 해라. 공부든, 회사생활이든, 취직준비든! 대학 떨어졌나? 회사에서 짤렸나? 취직이 안 되나? - 그럼 다 니 잘못이다! 관리를 잘 했어야지. 왜 그래 프로답지 못하게... 바바라 애런라이크의 저서 『노동의 배신』, 『긍정의 배신』은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노동의 배신』은 최저임금생활자들이 겪는 예측화의 과정들-면접에서부터 그들은 소변검사를 받아야 하고, 쓸데없는 설문지를 오리엔테이션에 써야 하는 등의 절차들...-을 고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청소노동자)의 경우는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순응적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설도 보여주고 있다. 『긍정의 배신』은 이러한 자기긍정의 사이비 논리를 파헤친다.) 이러한 주체화이자 예측화의 과정은 전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총체적 개별화는 각 개인들을 스트레스, 우울, 냉소주의, 자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병철의 『피로사회』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하나의 반향이겠지요. 여기에 한 술만 더 떠서 말하자면, 인간은 예측화되는 것만 아니라 자동 기계화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들은 기술기계와 접합되어 행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ATM 입금, 출금, 인터넷뱅킹, 지하철, 그 외 순 쉬운 기계적 절차들(은행에서 번호표받기)...이 것들은 미시정치들의 영역이자 예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각방식, 감성방식, 경험방식을 이처럼 변화시키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고 주시해야하며,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고, 절단할 수 있는가, 새로운 탈-예측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 4. 부채사회와 선물사회.

그렇습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의 모험과 과감한 의지 등으로 이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혁신은 오로지  $G \rightarrow G^*$ 이 되는 한에서 지지되며, 모든 논리의 논리는 금융의 논리로 귀착됩니다. 라짜라토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금융자본은 정치와 분리된 경제, 문화와 분리된 경제영역으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주의자들의 오류, 일부 정치철학자들의 오류(랑시에르 등)는 경제와 분리된 고유의 정치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나아가 인지자본주의도 금융자본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인지 자본은 그저 금융논리의 득이 되는 한에서의 하나의 자본을 뿐입니다. 이제 정치는 경제화된 정치로 변형됩니다. IMF와 신용 평가 회사들이 그리스라는 한 나라를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하고 주물렸는지 본다면 이를 잘 확인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금융자본, 즉 경제가 지배합니다. 과학 기술과 예술도 경제가 지배합니다. 그것은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반생산(anti-production), 즉 '지나침 속의 결핍의 생산'이기도 합니다. 2007년 금융위기는 분명 금융자본의 위기였지만 국가는 오직 그들에게 희년을 선사합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그들을 원상복귀하면서 국가부채를 기꺼이 떠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지요. 아이들은 국가부채라고 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복지예산들도 점점 금융의 논리로 변합니다. 복지기관들은 적자가 되고 빛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복지를 펴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권리의 행사에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을 늘어나게 한다는 가책을 받게 합니다. 국가발행 채권은 그러므로 장사가 되는 금융 사업이죠. 문화와 예술의 경우는 어떨까요? 거기에서도 금융의 논리가 자유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경영의 논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고, 위계화의 단계를 측정하며, 더 올라가야한다는 강박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니체는 채권-채무의 논리, 양심의 가책과 원한의 인간을 천민적, 노예적 가치평가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망각-고통-기억-관습의 도덕’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 주권적 개인(Das souveraine Individuum)을 제시합니다. 주권적 개인은 “자율적이고 초윤리적인 개체, 즉 간단히 말해 약속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오래된 의지를 지닌 존재”이며 따라서 관습적인 도덕을 박살 낼 수 있는 ‘광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세우야 할 에토스(ethos), 새로운 신은 무엇일까요? 베르그손은 『종교와 도덕의 두 원천』에서 열린도덕, 역동적 종교를 언급하면서 강제에 의한 규율이 아닌 교감, 교화에 의해 전개되는 신비주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주의의 힘은 창조적인 감정, 지성이상의 감정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창조적인 감정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들뢰즈/가타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양띠 외디푸스』에서 주체집단이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나중에는 노다디즘, 전쟁기계로 변형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사회기계에 예속되는 예속집단과 대비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혹은 외디푸스화하는 정신분석에 반하는 분열분석의 행위이기도 하지요. 즉 분자적 흐름에 덩어리진 그램 분자적 사회기계의 흐름을 종속시키는 행위가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러한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예측가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의 ‘실험’, ‘발명’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들의 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앞에서 일부로 누락시킨 **기초적인 코뮤니즘**, 혹은 **시민사회**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류학자의 업적들인데요, 모스가 그의 대작 『증여론』에서 밝혔고,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원시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초적인 관습(좋은 관습?)들입니다. 이것은 푸코가 말한 대로 ‘이해 없는 이해관계’의 집합이고, 흔히들 말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동정, 기본적인 공동체 감정 등의 사회적 유대를 칭합니다. 발터벤야민은 이를 경험의 영역으로 놓고, 현대는 경험의 빈곤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순수수단’이라고 했지요. 즉 방긋 웃으며 서로 인사하는 관계, 그것은 이해관계, 목적이 없는 함께 함의 확인,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예술계에서 언급되는 ‘커뮤니티’라는 것도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선물이 됩니다. 그레이버는 원시사회에서 대부분이 사회생활이 이러한 증여\_의무 관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배가고프면 그거 맛있어 보인다고 하며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은 그것을 배고픈 자에게 기꺼이 제공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다면 ‘초과 속에서 심화되는 결핍’인 반생산은 사라지겠죠. 장 보드리야르가 말했듯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환관계, 등가관계에 기초한 상업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업이나, 피라미드 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상업화에 대한 저항감 때문이지 아닌 가합니다. 하지만 푸코는 이러한 ‘사회’가 정치와 경제라는 이질성을 연결해주는 근대통치술의 상관 향으로써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근대성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곧바로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성’, ‘광기’, ‘민족’이 근대의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물이라고 합니다. 푸코의 말이 틀리지 않다면, 시민사회는 자신의 본래적 토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만큼이나 상상된 공동체인 것이죠. 혹은 이상화된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수수단, 이해 없는 이해관계는 더 넓거나 작은 범위에서 정도의 차를 가지고 인간생활에 순환되면서 재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냉소주의로 말미암아 상당히 축소되고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시, 부채기계의 분쇄, 분자적 흐름들의 조성, 유목적 공간의 창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커뮤니티 즉 공동체를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도래하는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부족의 형성, 새로운 미시\_체제의 형성, 자율적 공간의 조성과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푸코가 말한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것'과는 다른 사회적인 것 즉 우리들의 미래가 더 이상 저당 잡히지 않는 어떤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 뇌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채사회를 넘어서는 것은 모든, 전체주의, 배타주의와 분리차별의 시스템에 고장을 일으키는 것, 미시 증여 사회들의 증폭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느끼기, 다르게 살아가기의 교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서로가 상호적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창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미학'이 있다면 이러한 미시 흐름들의 접속과 새로운 생성들 자체에 기반하고, 이를 추동력으로 하여 그램 분자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있는 것이지, 이미 주어진 개인들 간의 만남, 초대, 파티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들뢰즈가 말하듯, 욕망은 교환을 모르고, 오직 증여나 도둑질만을 갖습니다. 예술은 정확히 이러한 증여의 과정자체이 인 것이죠. 먼저 창작의 국면에서 그것은 작가자신의 행복, 열락으로 다가오는 선물이요, 소비의 국면(관객)에서, 그것은 이미 주어진 욕구의 만족(상품소비)과는 완전히 다른 예측 불가능한 욕구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기묘한 만족을 주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적어도 그것을 느끼는 한 우리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미시-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주체는 와해되며 고유한 리듬에 따라 서로가 연결되는 어떤 더 큰 리토로넬르가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고립된 개인 주체로서의 향유가 아니라(혼자일 때조차도 얼마나 많은 집합적인 쾌감이 내면에 울리는가), 집합적인 향유로서의 예술은 현대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집합적인 생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협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집합적인 방식으로 작가 개인의 창작은 촉발되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양태의 집합이냐가 문제이겠지요. 현존하고 작동중인 덩어리 기계에 종속되는 집단적 작업이냐, 아니면 그것을 초월해 오고 있는 분자적 흐름들의 집합으로 나아가는 작업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나는 영원히 열등한 종족이요...나는 짐승이요 검둥이이다.(프란츠 파농)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아직 사회적 예술의 그 구체적인 형태들과 방식들을 정의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시들이 예술사에 존재하고 있고,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정의내리기보다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새로운 꿈, 착란을, 각자에게 각자의 성을, 각자의 특이한 예술을! 동일화에 용접되지 않는 기쁨의 증폭을!